



불기2558년 봉축 법요식 봉행

전국 서원당에서 사월 초파일 오전 10시 일제히



▲봉축법요식 축하공연을 하는 마니합창단

불기2558년 불교총지종 봉축 법요식이 5월 6일 오전 10시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충분산 총지사에서는 통리원장 법등 정사의 집공으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이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와 통리원장 법등 정사의 훈향정공에 이어 효강 종령 예하는 봉축 법어를 통해“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내가 지은 것 모두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체의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받아들이는 마음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을 때는 선도 악도 모두 지어놓고 받을 때가 되어서는 좋은 것만 받았다고 하는 중생심을 버리고 괴로움, 즐거움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라며 중생심을 버리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나가기를 당부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살아있는 모든 중생은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혐하고, 억압한다면 대배구세의 큰 서원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루기를 서원합니다.”며 봉행사에서 말했다.

총지사 마니합창단(단장 손경옥)의 찬불가 축하 공연을 끝으로 공식 법요식을 모두 마쳤다.

봉축 법요식 후에 참석한 교도들과 불자들은 공양을 나누었다. 오후에는 연등 서원불공과 전국 각 사원별로 문화행사과 나눔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총지사에서는 팝콘나누기 등 다양한 동참행사가 진행되어 불자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총기 42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 입제

5월 28일부터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과 조상불공으로

불교총지종의 전통적인 수행인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가 5월 28일 충분사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입제식을 봉행했다.

이번 불공은 전반기 자녀불공에 이어 호국안민과 ‘조상불공’으로 유연, 무연 조상들의 극락왕생 발원과 살아계신 부모의 안녕을 위한 서원과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 성불을 서원으로 49일간의 불공에 임한다.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정사는 충분사 총지사 하반기 49일 불공

입제식 설법을 통해 “과정이 없는 결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49일 조상불공의 입제 불공 때 마음먹은 대로 서원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49일 후에는 이루고자하는 열매의 과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국민을 아픔으로 빠트린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지극히 서원합니다”며 49일간의 불공기간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매일 오전 10시 전국의 서원당에서 봉행되는 불사는 7월 15일 회향을 마치고 전 교도들이 참석하는 호국안민기원대법회(방생법회)를 봉행 할 예정이다.

총지사=장동욱 과장



▲총지종 어울림힐링센터 개원식에 동참한 사부대중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종합 치유센터 개원

불교총지종 어울림 힐링 센터 개원법회 봉행

불교총지종 어울림 힐링 센터 개원법회가 5월 25일 오후 2시 30분 총지종 충분사 총지사서에서 봉행되었다.

개원법회에는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교정부장 원당 정사, 서울 경인교구장 범우정사 및 스승들과 교도들이 동참했다. 또한 김장실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남 갑),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 허우성 소장 등 내외 귀빈들이 어울림 힐링센터 개원을 축하했다.

교정부장 원당 정사의 집공과 벽룡사 법일 정사의 사회로 시작된 법회는 법등 통리원장과 김은숙 서울.경인 신정회 지회장의 훈향정공에 이어 총지종 정통의례에 따라 진행되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인사말에서 “총지종 어울림 힐링센터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동참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종단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며 힐링센터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힐링센터 대표 법장원 연구원 김종인 박사도 개원 인사를 통해 “아울림 힐링센터가 개원하기까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효강 종령 예하와 법등 통리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는 힐링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장실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축사에서 “바쁜 일상 속에 상처받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 할 수 있는 총지종 어울림 힐링센터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힐링 센터가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찾는 치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며 개원을 축하 했다.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남 갑)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시화 된 강남 한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총지종 힐링센터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강남구민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허우성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와 불교총지종은 국제재가불자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 왔습니다. 총지종 어울림 힐링센터의 개원을 맞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라며 인문학 분야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총지종 서울·경인 신도를 대표해 신정회 김은숙 지회장은 “총지종 전 교도들과 함께 어울림 힐링센터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총지종 전 교도들은 한 마음으로 힐링센터가 발전하기를 서원합니다.”며 전 교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반야심경 독송과 회향서원으로 개원법회는 회향했다. 이어 2부 행사로 어울림 힐링

센터 프로그램소개와 센터 강사들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다. 티베트 전통음악 연주자인 카락 뱌바 체령의 음악으로 최경실 교수의 힐링 춤 공연과 마술사 정병구씨의 마술 공연, 숙명여대 음악대학원 학생들의 치유 음악 공연 등이 선보여 동참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아울림 힐링센터는 6월 1일부터 각 강좌별 수업을 시작한다. 문의전화 02)501-9035
총지사=김중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의)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 교훈 : 신의·성실·정직
- 교목 : 보리수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총지종 스승과 교도의 지혜를 모아 괴산수련원을 완성하자”

괴산 중원사 주교 정정심 전수 모친 49재 추선 법회에서 종령님 훈시



▲ 이치금보살 49재

“괴산 중원사와 수련원 불사는 우리 종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불사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 승단과 교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효강 종령 예하는 5월 24일 괴산 중원사에서 봉행된 정정심 전수 모친 이치금 보살의 49재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원사와 수련원 불사에 관해 훈시하고 현지 지도하였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와 총무부장 인선정사로 부터 불사 진척 현황을 보고받고 중원사와 수련원 부속시설 등을 둘러본 효강 종령 예하는

이번 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무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기우려 줄 것을 훈시 하셨다.

법등 통리원장과 총무부장 인선 정사는 종령 예하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이를 불사에 바로 적용하여 마무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였다.

이날 승원 정사(대전 만보사 주교)의 집공으로 봉행된 정정심 전수(중원사 주교)의 모친 이치금 보살의 49재는,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고인의 극락왕생 발원으로 엄숙히 치러졌다. 유가족 대표 정정심 전수는 인사말에서



▲ 수련원 현장을 지도하시는 효강종령 예하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하여 오늘 저희 어머니 49재에 동참하신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께 감사의 합장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불공 공덕으로 부디 어머니의 영가가 극락왕생하시기를 서원 합니다.”며 49재에 동참한 스승과 교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법회에는 효강 종령 예하, 법등 통리원장, 수련 중앙종의회 의장, 인선 총무부장 및 전국의 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했다.

사원 ‘득락전’ 관계 주교 회의 개최

밀교연구소 주최, 5월 23일 ‘의식연구’와 ‘운영방안’ 논의



▲ 성화사에서 개최된 ‘득락전 관계 회의’

총지종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법천사 주교)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시 부산 성화사에서 ‘득락전(得樂殿) 관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득락전을 건립한 사원의 주교 스승님들의 요청으로 개최되었는데, 회의에서 영식전도와 축원불공 의식, 원불모연,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으로는 득락전 운영형태의 비교 분석, 불공시기와 방법, 계약내용의 세분화, 제수용품과 제반 비용, 서원당과 득락전의 위치 고려, 후불탱화의 조성, 일반 법회의 연계, 득락전 활용의 극대화 등이었으며 회의는 5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또한 득락전과 삼존불, 원불(願佛)의 형태와 구조, 서원당 본존 불단과 양부만다라 불단의 문양삼매야미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는 밀교연구소장 법경 정사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성화사 기로승지광 정사, 주교 수심정 전수, 화음사 주교 수현 정사, 수인사 주교 안성 정사, 만보사 주교 승원 정사, 제석사 주교 행원심 전수, 법성사 주교 해광 정사가 참석했다.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운영지침서를 마련하고 6월 중순경 제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교도복지시설 확충의 첫 삽을 뜨다.

성남 법천사 기로원 리모델링 지진불사



▲법천사 기로원 리모델링 시삽식

성남 법천사(주교 법경 정사) 기로원 리모델링 공사 지진불사가 5월 26일 봉행되었다.

총기43년 총지종 교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기로원 건물을 개. 보수하여 서울·경인 지역 교도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법천사 주교 법경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지진불사에는 통리원장 법등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서울·경인 교구장 범우 정사 등 서울 경인 교구 스승들과 법천사 교도들이 동참 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지진불사는 교도복지 시설 확보의 첫 삽을 뜨는 것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리모델링 공사가 원만히 회향하기를 서원 합니다.”며 이번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서원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기로원 건물은 총면적 828㎡의 지상3층,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공사 후 교도복지시설로 전환 될 예정이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서울·경인 교구 보은 행사

총지종 각 사원의 신정회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경인 지역 신정회(지회장 김은숙 보살)는 미사리 한정식 식당에서 효강 종령 예하와 법등 통리원장 및 서울 경인지역 스승님들과 기로스승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 자리를 가졌다.

김은숙 신정회장은 효강 종령 예하께 꽃 공양을 올리며 “미망에 갇혀 어두운 고히의 바다를 헤매이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즉신성불의 진언 밀법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 스승님들께 감사의 경배를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며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법등 통리원장 인사말에서 “해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보은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교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염송정진을 통한 즉신성불의 영원한 도반이 되었으면 합니다.”며 자리를 마련한 신정회에 감사사를 전했다. 부산,경남 교구를 비롯한 전국의 교구는 스승의 날을 맞아 각 신정회 별로 보은의 장을 열었다.

통리원=장동욱 과장

인터넷 총지종보 www.chongjinews.com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금자 금액 상이로 다시 게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 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3/26~4/25			
개 천 사	무 명 씨	4/10	20,000
개 천 사	강 순 시	4/11	10,000
관 성 사	인 선	4/21	20,000
기 로 해 정		3/26	10,000
밀 인 사	정 정 희	3/31	5,000
밀 인 사	김 종 호	4/14	20,000
밀 인 사	무 명 씨	4/16	10,000
실 보 사	조 순 애	4/23	60,000
실 보 사	정 우 석	3/27	10,000
일 원 어	하 재 희	3/26	30,000
린 이 집	최 복 란	3/27	10,000
자 석 사	무 명 씨	4/15	20,000
정 심 사	원 정 언	3/26	30,000
지 인 사	승 효 제	4/10	10,000
	허 성 동	4/24	30,000
초 록 어	오 현 주	3/31	10,000
린 이 집	황 화 성	4/25	30,000
총 지 사	이 상 은	4/25	10,000
해 정 사	법 등	3/31	30,000
	박 순 희	3/28	50,000
	박 순 희	4/1	10,000
흥 국 사	지 정	4/21	20,000

미 기 재	장 재 은	3/28	10,000
미 기 재	현 진 영	4/10	10,000
4/26~5/25			
개 천 사	이 희 권	5/9	10,000
개 천 사	강 순 시	5/12	10,000
개 천 사	무 명 씨	5/22	30,000
관 성 사	황 성 녀	4/30	10,000
관 성 사	인 선	5/19	20,000
기 로 대 관		5/19	10,000
기 로 대 자 행		5/19	10,000
기 로 밀 공 정		5/19	10,000
기 로 범 수 원		5/19	10,000
기 로 범 장 화		5/19	10,000
기 로 범 지 원		5/19	10,000
기 로 불 멸 심		5/19	10,000
기 로 사 흥 화		5/19	10,000
기 로 상 지 화		5/19	10,000
기 로 수 증 원		5/19	10,000
기 로 총 지 화		5/19	10,000
기 로 선 도 원		5/19	10,000
기 로 해 정		5/22	10,000
단 음 사	법 연 지	5/15	10,000
만 보 사	정 덕 순	4/29	10,000

밀 인 사	정 정 희	4/30	5,000
밀 인 사	이 위 임	5/9	100,000
밀 인 사	이 채 원	5/12	10,000
밀 인 사	이 연 주	5/12	10,000
밀 인 사	무 명 씨	5/15	10,000
백 월 사	진 평	5/20	5,000
벽 롱 사	양 정 현	5/5	10,000
벽 롱 사	양 지 현	5/5	10,000
삼 밀 사	하 명 순	5/15	10,000
선 립 사	심 지 장	5/15	10,000
성 화 사	우담바라희	5/20	50,000
수 인 사	김 봉 기	4/28	10,000
수 인 사	무 명 씨	5/7	10,000
승 천 사	원 봉	5/15	10,000
승 천 사	지 선 행	5/15	10,000
실 보 사	이 순 옥	4/30	10,000
실 지 사	정 경 자	4/28	10,000
실 지 사	송 우 섭	4/30	10,000
실 지 사	박 병 성	5/21	50,000
일원어린이집			
	김 지 영	4/26	10,000
	최 복 란	4/28	10,000
	하 재 희	4/28	30,000

	구 미 자	4/30	10,000
지 인 사	허 성 동	5/15	30,000
지 인 사	승 효 제	5/15	10,000
지 인 사	지 성	5/15	10,000
초록어린이집			
	이 은 주	4/26	10,000
	오 현 주	4/30	10,000
	이 지 은	5/2	10,000
	박 주 원	5/3	10,000
	이 상 은	5/23	10,000
총 지 사	법 등	5/2	30,000
해 정 사	박 종 석	5/23	20,000
화 음 사	강 순 란	5/7	10,000
화 음 사	송 효 영	5/13	10,000
화 음 사	송 하 나	5/13	10,000
흥 국 사	지 정 언	5/15	20,000
미 기 재	원 정 언	4/29	30,000
미 기 재	장 재 은	5/2	10,000
미 기 재	원 정 언	5/15	20,000
미 기 재	박 금 자	5/15	120,000
미 기 재	김 갑 선	5/19	10,000
미 기 재	최 영 례	5/20	10,000

4월26일부터 5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마산 운천사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

서부 경남 포교의 전기가 되기를 서원



▲ 운천사 양계 만다라 봉안 제막식

부산.경남 교구 마산 운천사(주교 정원심 전수)는 5월 13일 서원당에서 양계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를 봉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 법등 통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부산.경남 교구 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한 법회는 시정 부산.경남 교구장의 집공과 법선 동해중학교 정교의 사회로 봉행되었다.

만다라 제막식, 훈향정공, 3,7의례, 종령법어, 통리원장 인사말, 정원심 주교 봉행사, 박금자 운천사 신정회 고문회장의 발원문, 부산.경남 만다라 합창단의 축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오월의 신록은 바로 자연의 만다라입니다. 오늘 봉안 되는 운천사 양계 만다라를 통해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 수행은 법신의 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밀교의 특별한 도상이자 상징입니다.”며 “만다라 봉안으로 운천사 교도님들의 소구 소원과 즉신 성불의 진언 수행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서원합니다.”라며 만다라 봉안으로 운천사의 교화 발전이 원만하기를 서원했다.

법등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부산.경남 스승 및 교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운천사 양계 만다라 봉안으로 마산 및 창원 지역 교화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참석한 스승 및 교도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정원심 운천사 주교는 봉행사를 통해 “오늘 만다라 봉안 불사는 그동안 진언 염송 정진으로 만다라 봉안을 서원한 운천사 교도들의 정성과 효강 종령 예하 중단 집행부의 큰 관심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룬 큰 불사입니다.”며 만다라 봉안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운천사 교도와 스승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이성미 운천사 신정회장은 인사말에서 “양계 만다라가 원만히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효강 종령 예하 및 통리원 집행부와 전국의 스승 및 교도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만다라 봉안으로 운천사 교도들은 더욱더 용맹 정진하여 오세대 제도의 서원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며 교화와 정진의 서원을 다짐했다.

박금자 운천사 신정회 고문회장은 발원문에서 “법계 비로자나 궁 운천사에 양부 만다라 봉행으로 지혜와 자비의 가지력이 넘쳐흐르고, 탐, 진, 치 삼독으로부터 하루 속히 벗어나기를 발원하옵습니다.”며 진언 밀법의 대도가 꽃 필 수 있도록 발원했다.

부산·경남 만다라 합창단(지휘 박운규)의 축가와 교도들의 서원으로 운천사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는 원만히 회향했다.

마산 운천사= 통신원김삼연, 고지현, 이수연, 한경림
사진=김종열 기자

경주 진화사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 봉행

대구, 경북 교구 주관으로 5월 10일 봉행



▲ 진화사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

대구.경북교구 경주 진화사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가 5월 10일 봉행되었다. 안성 정사(대구.경북 교구장, 수인사 주교)의 집공과 우인 정사(개천사 주교)의 사회로

봉행된 불사는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했다. 기로스승 법공 정사는 축사를 통해 “경주 동부의 교화

중심 사찰인 진화사의 양계 만다라 봉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기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진언 수행을 해온 진화사 교도분들에게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 하기를 서원합니다.”라며 진화사 만다라 봉안은 교도들이 이룬 불사라고 축하했다.

진화사 주교 법상 정사는 봉행사에서 “오늘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에 동참해 주신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만다라 봉안을 위해 애써주신 효강 종령 예하와 통리원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진화사 만다라 봉안을 계기로 교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며 만다라 봉안으로 활기찬 교화 방편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화사 신정회 신연호 회장은 발원문 봉독에서 “대자대비하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원만한 봉안된 만다라는 진언행자 수행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진화사 교도들은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는 그날까지 불퇴전의 각오로 용맹 정진 하겠습니다.”며 만다라 봉안으로 용맹 정진의 수행 가풍을 세워 나갈 것을 교도를 대표해 발원 했다.

경주 진화사 양계 만다라 봉안으로 총지종의 오랜 교화 중심지인 경주 교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주 진화사= 영천 단음사 통신원 권순복

부산·경남 신정회

중원사 발전 기금 전달



▲ 중원사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신인록 지회장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지회장 신인록)는 5월 24일 괴산 중원사를 방문, 발전 기금 200만원을 중원사 주교 정정심 전수에게 전달했다.

부산·경남 신정회 신인록 지회장은 “괴산 중원사가 총지종을 대표하는 사원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수련원이 완공되어 전 교도들이 집중 수행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며 부산.경남 교도들의 염원을 전했다.

중원사 주교 정정심 전수는 “멀리서 시간을 내어 중원사를 찾아주신 신인록 지회장님과 교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종도들이 편히 수행 할 수 있는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교도들의 정성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중원사=통리원 장동욱 과장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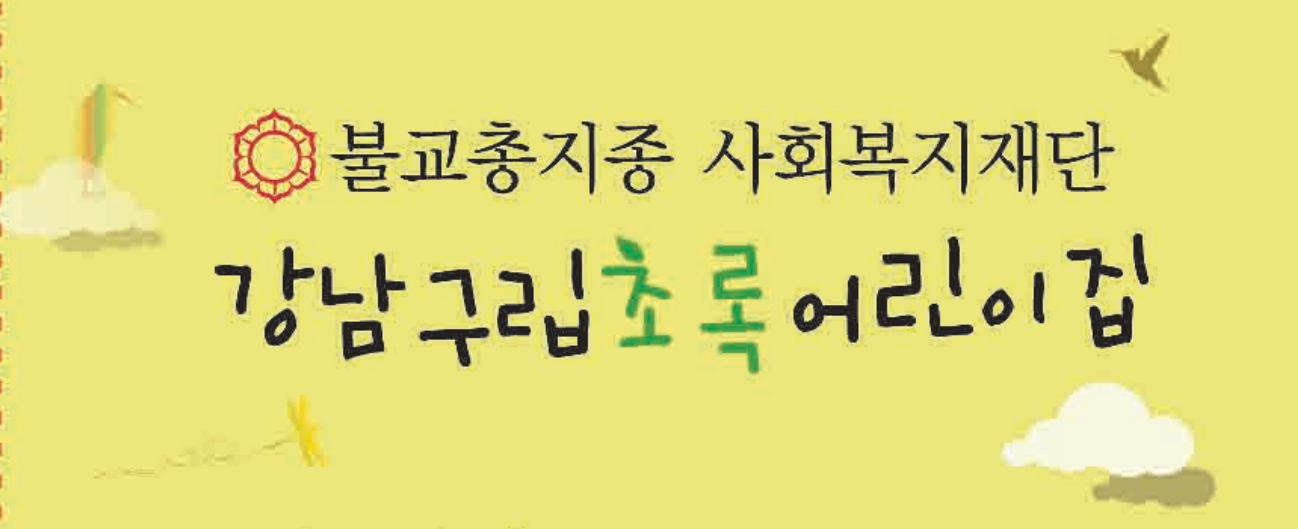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 강남구 현령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02-445-2326

법념처(4)

칠각지(七覺支) -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7가지 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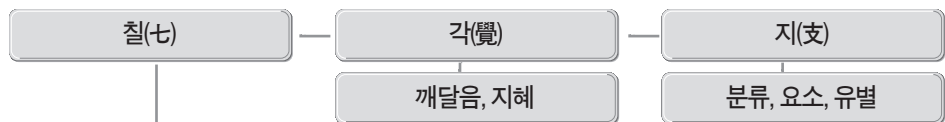
화령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관칠각지(觀七覺支)

칠각지를 관하는 것은 오개, 오온, 십이처, 사제를 관하는 것과 함께 법념처의 수행방법중의 하나이다. 칠각지는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7가지 요소로서 마치 배의 노처럼 지혜를 증장시켜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한다. 칠각지는 염각지(念覺支), 태법각지(擇法覺支), 정진각지(精進覺支), 희각지(喜覺支), 경안각지(輕安覺支), 정각지(定覺支), 사각지(捨覺支)를 말한다. 각지라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각'은 깨달음, 지혜의 뜻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보리가 이것이다. '지'는 분류, 유별(類別), 요소의 뜻으로서 '칠각지'라고 하면 철저한 깨달음, 철저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7가지의 수행 종류, 혹은 수행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칠각지를 칠각분(七覺分)이라고도 한다.

사념처수행과 칠각지는 서로 뗄 수 없는 것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수행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칠각지가 무르익으면 우리의 지혜가 원만해지며 이로부터 모든 미혹을 떠나 영원히 괴로움을 멸하게 되는 것이다.

칠각지-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요소



염각지(念覺支)	생각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하는 것
태법각지(擇法覺支)	법을 판별하고 사유하는 지혜
정진각지(精進覺支)	선을 기르고 악을 제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희각지(喜覺支)	수행에 의하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
경안각지(輕安覺支)	심신이 경쾌하고 명량한 것
사각지(捨覺支)	마음이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
정각지(定覺支)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고요한 것

수행환경에 따라 칠각지를 운용

-염각지가 칠각지의 중심

1.염각지(念覺支)

칠각지중의 첫 번째는 염각지인데 지금껏 말해온 것처럼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정념을 닦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念)에 의하여 어떤 것의 가치를 판단하고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은 칠각지수행의 기초가 된다. 정념이 없으면 다른 각지는 발전할 수가 없다. 염각지는 자기의 심신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자기의 신·수·심·법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다. 정념을 지니면 매사에 대하여 분명한 상황파악과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어떤 것을 볼 때는 보는 것에 집중하고 말할 때는 말하는 내용에, 얘기를 들을 때는 듣는 것에 집중하며, 행동할 때는 행동하는 대상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정념이다. 따라서 정념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놓치지 않는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염각지는 자기의 언행과 생각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으로 사념처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염각지를 의각지(意覺支)라고도 한다.

2.태법각지(擇法覺支)

정념이 있어야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의 삶은 과거와 미래에 끄달리지 않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지나가버린 일, 생기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태법각지는 정념에 의한 마음챙김을 바른 지혜로써 더욱 잘 사유하여 바른 방법, 즉 바른 수행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살필 줄 아는 지혜인데 한 마디로 진리인 법을 판별하고 사유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정념은 정법을 선택하기 위한 기초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념에 의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의 심신 상태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살피게 한 다음 이러한 지혜를 통하여 편벽되고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잘 살펴 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이 태법이다. 태법의 특성은 사물 각각의 본질에 의거하여 그것들을 통찰하는 것인데 태법각지로써 통찰할 때는 당연히 대상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잔불이 켜지면 방안의 모든 사물을 일시에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3.정진각지(精進覺支)

정진은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정진각지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견지해 나아가 마침내 해탈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하여서도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어떠한 곤란이 오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어 해결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정진각지는 수행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아내며 헤이해지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노력이다. 정진의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일깨우며 늘 정념을 유지하는 데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시시각각 모든 동작, 모든 사태에 대하여 늘 정진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잠시도 놓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자기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정근(四正勤)이라고도 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은 더욱 자라게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생긴 악은 멸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4.희각지(喜覺支)

희각지는 불법을 깨달음에 의하여 일어나는 기쁨으로서 정진수행을 통하여 심성이 맑아지고 번뇌의 더러움이 씻겨졌을 때 얻어지는 희열이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희열은 세속적인 만족과는 다른 것이다. 세 차를 사거나 세 집을 샀을 때 혹은 이성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으로 진리의 체득에 의한 기쁨이다. 법열(法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다. 대자유를 만끽하는 기쁨이 그러한 것이리라.

5.경안각지(輕安覺支)

경안각지는 불안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심신이 편안하고 가벼운 것으로서 제각지(除覺支)라고도 한다. 마음의 모든 근심과 번뇌가 제거되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희각지에서 얻어진 기쁨으로 인하여 심신이 경쾌하고 명량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의각지(猗覺支)라고도 한다. 경안각지는 깨달음의 지혜와 심신청정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으며 탐진치가 없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6.사각지(捨覺支)

사(捨)라는 것은 한 쪽에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이다. 억지로 무엇을 한다거나 한 가지에 집착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감정에 휘둘려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벗어나 어떤 일에도 마음이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게 모든 것을 내려 놓는 지혜가 사각지이다.

7.정각지(定覺支)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산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정각지이다. 일상생활에서 정념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안정된 상태가 되면 사물의 실상을 잘 통찰할 수 있게 된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통일되어 선정의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칠각지를 잘 닦음에 의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잡아함경》에서 이러한 칠각지를 닦는 요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무력하여 망설여질 때는 경안각분, 정각분, 사각분을 닦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력한 마음이 생겨 망설여질 때 이 수행법들은 무력감을 더하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꺼져 가는 불을 살리고자 하면서도 재를 끼얹는 것과 같다.”

즉 마음이 침체되어 무기력할 때는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를 닦으면 더 힘이 빠지고 게을러진다는 말씀이다. 이럴 때에는 오히려 태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를 닦아야 의지가 굳어지고 힘을 받는다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마치 불을 더 타오르게 하고 자 땀감을 대 주는 것처럼 태법에 의하여 갖가지 가르침을 받고 인도되어서 기뻐하게 되며 정진에 의하여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또 마음이 들뜰 때는 태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를 닦지 말고 염각지, 정각지, 사각지를 닦아야 불을 끄려고 재를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하셨다. 이렇게 칠각지를 잘 운용하여 그때그때마다 형편에 맞게 마음을 깨달음의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칠각지를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한 배의 노에 비유하는 것이다.

칠각지를 생기게 하는 방법

염각지를 생기게 하는 4가지 방법

- 정념을 바르게 안다
- 미혹하고 정념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을 멀리한다
- 정념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
- 정념을 기르는데 힘쓴다

태법각지를 생기게 하는 7가지 방법

- 청정한 신체와 환경유지
- 여기에 대한 문제를 묻고 법에 맞게 수행
- 오군을 고르게 한다
-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한다
- 지혜있는 자를 가까이 한다
- 태법각지를 기르는데 힘쓴다
- 온, 처, 계, 연기 등의 차별을 깊이 생각한다

정진각지를 생기게 하는 11가지 방법

- 악취(惡趣)를 사유한다
- 정진의 이익을 생각한다
- 도를 생각한다
- 공경하게 사식(施食)한다
- 부처님이 남기신 것을 사유한다
- 큰 스승을 사유한다
- 전해내려오는 뛰어난 것들을 사유한다
- 함께 닦는 것의 훌륭함을 사유한다
- 게으른 사람을 멀리한다
- 정진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 정진각지를 기르는데 힘쓴다

희각지를 생기게 하는 11가지 방법

-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
- 항상 불법을 생각한다
- 항상 상가를 생각한다
- 항상계를 생각한다
- 항상 집착을 떠날 것을 생각한다
- 항상 천신들을 생각한다
- 항상고요함을 생각한다
- 거친 사람을 멀리한다
- 교양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
- 신심을 일으키는 경문을 생각한다
- 희각지를 기르는데 힘쓴다

경안각지를 생기게 하는 7가지 방법

- 알맞은 식사
- 적당한 기후
- 편안한 자세
- 중도적인 말
- 시끄러운 사람을 멀리한다
- 조용한 사람과 함께 한다
- 경안각지를 기르는데 힘쓴다

정각지를 생기게 하는 11가지 방법

- 청정한 곳에 머문다
- 오군을 고르게 한다
- 업처를 잘 선택한다
- 필요할 때에는 마음을 다그친다
- 필요할 때에는 마음을 누른다
- 필요할 때에는 기쁜 마음을 낸다
- 필요할 때에는 중립적으로 마음을 바라본다
-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을 멀리한다
-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과함께 한다
- 고요함과 해탈을 사유한다
- 정각지를 기르는데 힘쓴다

사각지를 생기게 하는 5가지 방법

-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을 대한다
-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물을 대한다
-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를 멀리한다
-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자를 멀리한다
- 버리는 마음으로 산다

더 많은 중생들을 만다라의 세계로 인도하자

운천사 만다라 봉안 가지불사 종령 법어



불교 총지종 종령 효강

오늘 운천사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불사에 참석하고자, 어제 오후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자연은 신록이 넘쳐흐르고, 그 사이에 부는 훈풍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또 하나의 만다라입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란 것이 없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 만다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시하시느냐! 신록의 생기발랄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참 생명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싱그럽고 희망차게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교시가 만다라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운천사 비로자나 법계금강도량에서 만다라 봉안을 맞아 이 자리에 앉으니 감회가 무량 합니다. 운천사의 위치가 뒤로는 무학산이 우뚝 솟았고, 앞으로는 푸른 마산 앞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기상은 산과 같이 높고, 마음은 바다와 같이 깊고 넓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부처님의 당체 설법이라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만다라는 우리 밀교의 독특한 불보살의 세계를 상징하는 장엄입니다. 만다라의 조성은 이 깨달음의 세계를 일반 중생 범부는 깨치지 못하고 증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묘한 깨달음의 세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심오한 표현을 예술적 표현, 즉 그림으로서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세계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봉안하는 만다라의 참 뜻인 것입니다.

불교는 인연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인연설에는 12인연설을 비롯하여 6대연기설이 있습니다. 우리 밀교에서는 6대 연기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 수, 화, 풍, 공, 식의 육대 위에서

모든 우주가 구성이 되고 인간의 생명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 수, 화, 풍, 공, 식의 앞의 다섯가지는 하나의 색을 나타냅니다. 식은 바로 마음입니다. 정신인 것이지요. 반야심경에도 나오듯이 색과 심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셨습니다. 오늘 봉안되는 만다라는 색심불이의 진리를 이 자리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색과 심은 하나의 원용으로 빈틈없이 같은 것입니다. 물질을 만다라에서는 어찌 교시 하셨느냐면 지, 수, 화, 풍, 공 즉 물질적인 것을 '이'라 하여 객관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태장계 만다라가 이의 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입니다. 즉 태장 금강 두 만다라는 이와 지를 설명하기위해서 둘로 나누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법계의 원리를 쉽게 알리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에는 많은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모두 444불을 모셨습니다. 금강계는 1361존의 부처님 상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두 만다라의 부처님은 모두 1875존을 모신 것입니다. 이 많은 부처님이 오늘 운천사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그림으로 상징화 시킨 만다라를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태장계 만다라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합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우리 중생을 향해서 어리석은 미망을 벗어나도록 법문으로 교시하시는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주관적인 세계이므로 정신적인 세계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성불하기 까지 어떤 과정을 밝아가는 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받들어 우리 중생들은 참회하고 열심히 염송 정진해서 성도할 수 있는 과정을 양계 만다라를 통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일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 합장으로 부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운천사에는 육자대광명 진언 본존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양계 만다라를 봉안했습니다. 다라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저쪽으로 데리고 가다' 미혹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옴마니반메흠 염송 정진을 하면은 미혹에 빠진 어리석은 중생들이 깨달음의 세계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다라니는 향시 우리를 인도하는 진언인 것입니다. 오늘 운천사 양계만다라 봉안은 운천사 교도들이 참된 불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천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찰이 되기를 서원하고, 또한 중생 제도의 큰 포부를 펼치시어 많은 중생들을 이끌어 진언염송 밀교의 세계로 인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조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들이 경기도 안산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안산시불교사암연합회를 격려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이하 종단협)는 5월 12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조문에는 종단협 부회장 천태종 준광

총무원장 스님, 사무총장 관음종 홍파 총무원장 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총지종 법등 통리원장,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 법륜종 총무원장 법흥 · 정토종 총무원장 혜선 · 법연종 총무원장 법연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조문 직후 부회장 준광 스님은 심리 치유와 상담 등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안산시불교사암연합회에 격려차원에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안산=김종열 기자

화령 중앙교육원장 동해중 교직원법회 초청설법

법수연 전수 설법 어머니회 법회도 열려



동해중학교 교직원 불자회와 불교어머니회 법회가 5월 23일 총지종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초청 법회를 열었다.

법선 동해중학교 정교의 집공으로 정각사 법수연 전수 와 불교어머니회, 교직원 불자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화령 정사는 설법을 통해 “불교적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줄 압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시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교육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며 교직원불자회의 발전과 수행정진을 기원했다.

이날 법회 후에는 간담회를 열고 학교 재단과 종단에 대한 가감 없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동해중=김재근 선생님

정각사 신형 사원 안내판 설치

새로운 디자인으로 알기 쉬운 안내판



정각사는 사원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신형 사원 안내판을 설치했다.

그 동안 사용 한 안내 판에 비해 크기와 글자를 키우고 노 보살님들의 눈에 쉽게 뛰도록

디자인 했다.정각사는 교도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하여 편안한 수행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정각사= 통신원 이상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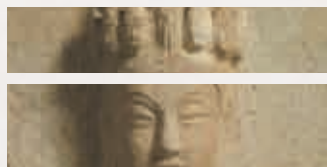


화령 편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사가 8,000원 (10권 이상)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곁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흠의 의미와 수행법

화 보

총지종, 어울림 힐링센터 개원법회

불교총지종 어울림 힐링 센터 개원법회가 5월 25일 오후 2시 30분 총지종 총본사 총지사에서 봉행되었다.
반야심경 독송과 회향서원으로 열린 개원법회에 이어 어울림 힐링센터

프로그램소개와 센터 강사들의 축하무대가 이어졌다. 티베트 전통음악 연주자인 카락 뽀바 체링의 음악으로 최경실 교수의 힐링 춤 공연과 미술사 정병구씨의 미술공연, 숙명여대 음악대학원 학생들의 치유 음악 공연

등이 선보여 동참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어울림 힐링센터는 6월 1일부터 각 강좌별 수업을 시작한다.
본지에서는 이날 행사내용을 화보로 신는다. <편집자 주>



▲법등 통리원장 인사말



▲서울경인 신정회 김은숙 지회장 축하



▲김종인 대표 인사말



▲김장실 국회의원 인사말



▲경희대 비폭력 연구소 허우성 소장



▲강남구 국회의원 심윤조 축하



▲총지종 어울림 힐링센터 개원 법회 동참 대중



▲법등 통리원장과 김은숙 지회장의 훈향정공



▲위빠사나를 지도하는 미얀마 마하사센터 자가라스님



▲카락 뽀바 체링 티벳음악 공연



▲최경실 교수의 힐링춤 공연



▲숙대 음악대학원 치유음악공연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트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2 경동 유니온빌딩 6층

불교총지종 교우들에 한해
10~20% 할인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미국 보스턴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요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상담전화

02.967.2228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지난호에서 만다라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성만다라(自性曼荼羅)·관상만다라(觀想曼荼羅)·형상만다라(形像曼荼羅)의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 우주 삼라만상의 현상을 그대로 만다라로 보는 것을 자성만다라(自性曼荼羅)가 있고, 이를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것을 관상만다라(觀想曼荼羅)라 하며, 그림으로 나타내어 채색(彩色)한 것을 형상만다라(形像曼荼羅)라 한다.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라 하여 이를 도회만다라(圖繪曼荼羅)라고도 한다.

그 가운데 그림으로 그려진 불보살, 제존(諸尊)의 모습, 형상을 일러서 존상(尊像)이라 한다. 태강계·금강계 만다라의 불보살(佛菩薩)과 명왕(明王)·천왕(天王), 제신(諸神)들이 대표적인 형상만다라(形像曼荼羅)의 존상들이다.

존상(尊像) - 불보살, 제존(諸尊)의 모습, 형상

형상만다라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대만다라(大曼荼羅)·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법만다라(法曼荼羅)·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이며, 이 가운데 불보살의 모습, 즉 존상(尊像)으로 그려진 만다라가 바로 대만다라이며, 이를 달리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 도상만다라(圖上曼荼羅)라고도 하고, 존상(尊像)으로 그려진 만다라라 하여 존형만다라(尊形曼荼羅)·존상만다라(尊像曼荼羅)라고도 한다.

대만다라의 존상(尊像)을 한 분 한 분 만나보기로 한다. 이 존상(尊像)에는 격(格)이 있으며, 그 역할과 공능이 각기 다르다.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존상(尊像)이 불(佛)이다. 즉 부처님이다. 그다음에 보살(菩薩)이며, 이어서 천왕·명왕과 천신 등의 제존(諸尊)들이 순서대로 등장한다.

불(佛) - 제일(第一)의 존상(尊像)

만다라의 존상 가운데 제일의 순서로 등장하는 불(佛)은 본래 불교의 개조(開祖)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후세 사람들이 상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 카필라국의 왕자로서 탄생하고 자라고, 이후에 출가와 수행, 성도(成道)의 과정과 함께 전법(傳法), 입멸(入滅)의 모습으로 조각되기도 했고,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고대 인도인들은 성인인신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을 지극히 꺼려했다. 큰 스승이신 부처님을 신성시하였고 그것을 조형화한다는 것은 신성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다. 이와같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신앙적 사고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의 불교를 무불상(無佛像)시대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불상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개 부처님께서 입멸



▲인도 산치 대탑의 불전도(佛傳圖):산치 대탑의제1문 가운데 북문의 탑문 기둥에 새겨져 있다. 불탑승배의 한 장면이다.

(入滅)하신 지 500 여년이 지난 시기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 시기가 기원전후에 해당한다.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기불교시대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생애나 일화와 관계된 그림이나 조형을 조성할 때 석가모니부처님 대신에 법륜(法輪), 보리수(菩提樹), 연화좌(蓮華坐), 금강좌(金剛坐), 불족(佛足), 사리탑(舍利塔) 등으로 표현하였다. 인도의 산치 대탑에는 불상을 대신한 조형물들이 무수히 새겨져 있다. 대부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도(本生圖)와 석가모니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나타낸 팔상도(八相圖)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일화들을 묘사한 불전도(佛傳圖)가 새겨졌다.

이와 같이 입멸후 500여년 까지는 불상이 출현하지 않고 다른 상징물로 표현되었고 500년이 지난 시점에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던 때부터 이미 불상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입장이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주장된 것이라 보고 있다. 경전의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다. 『증일아함경』 제28권이나 『관불삼매해경』 등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신이(神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머니인 마야부인을 위하여 도리천(初利天)에 올라가 설법하였을 때 지상에서는 오랫동안 부처님의 모습을 뵈 수 없게 되자 당시 신심이 돈독하였던 교상미국(憍賞彌國-Kausāmbi)의 우다야나왕(優填王-Udayana)은 신하들을 시켜 단항목과 박달나무로 높이 5자의 여래형상을 만들게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4)

만다라의 존상(尊像) ① - ‘불(佛)’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사위국의 파사익왕은 금(金)으로 다섯 자의 여래상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관불삼매해경』에서는 역시 우다야나왕이 석가모니부처님을 사모하여 금(金)으로 불상을 만들어 예배하고 공양을 올렸는데, 도리천에 가셨던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금(金)으로 만든 상(像)을 보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내세에 큰 불사를 지었구나. 내가 멸도(滅度)한 후에 나의 모든 제자들을 너에게 부촉하노라.’라고 하였다고 한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불상의 도량을 예언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 내용은 전설적인 불상제작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신앙적인 측면일 뿐 불상 제작은 훨씬 후대(後代)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경남 산청의 겹외사 대웅전의 석가모니부처님.

불상(佛像) 조성 이전에는 연화(蓮華)·보리수(菩提樹)·법륜(法輪)·불탑(佛塔)·불족적(佛足跡)·금강보좌(金剛寶座)로 표현.

불상이 출현하기 전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가모니부처님의 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징물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주로 연화(蓮華)·보리수(菩提樹)·법륜(法輪)·불탑(佛塔)·불족적(佛足跡)이나 금강보좌(金剛寶座)로 표현되었고, 또는 그냥 공백(空白)으로 처리되기도 하였다.

연꽃은 부처님의 탄생을, 보리수는 깨달음, 법륜은 설법을 나타내고, 불탑은 열반을 뜻한다. 특히 불탑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화장에서 나온 사리를 모셔둔 신성한 상징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들 네 가지는 부처님의 4대 성지를 의미한다.

불족적은 부처님의 전법활동(傳法活動)을 의미한다. 단순한 발에 불과하지 않다.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의 발이 여러 장면에 걸쳐 무수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곧 부처님의

교화(敎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발과 관련된 내용을 본다면,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것이다. 첫 발을 내디딘 발자국이 지금도 네팔의 룸비니 동산에 남겨져 있다. 돌아가실 때도 관 밖으로 발을 내보이셨는데, 불법(佛法)이 영원하다는 것을 발로써 보여준 것이다. 발과 연관된 일화는 이 뿐만이 아니다. 사촌동생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해하려고 상처를 낸 부분도 발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부처님의 발에 피를 내면 바라이죄에 해당한다는 율을 제정하게 되었다. 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전 여러 곳에서 부처님의 발을 씻어 드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설법을 마칠 때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발 아래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고 물러갔다는 대목도 자주 등장한다. 이는 부처님에 대한 예경이자 부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금강보좌나 공백은 부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주 삼라만상에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한다. 여여(如如)하며 상정(常定)에 머물러 계심을 나타낸다.

석가모니부처님의 모습을 상(像)으로 나타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원정(B.C.326~325)과 관련이 깊다. 그리이스의 신상(神像)들이 인도 불교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곳이 인도의 간다라 지방이다. 그래서 이 지역의 불교 예술과 불상을 일러서 간다라미술, 간다라불상이라 한다. 그동안 인도인들은 석가모니부처님을 신성시하여 상(像)으로 모시지 않았지만 그리이스의 신상(神像) 영향을 받아 석가모니부처님을 인격화하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불상(佛像)으로 조각하게 되었다. 그 불상은 32상(相) 80종호(種好)의 특성(特相)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에 또다른 지역에서 불상의 조각이 이루어졌으니, 이곳이 인도 중서부의 마투라 지역이다. 이 지역의 불상을 마투라 불상이라 한다. 인도 자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조각된 불상이다.

초기불교로부터 부파불교에 이르는 동안에는 부처도 석가모니 일불(一佛) 뿐이었다. 물론 과거칠불이 있었지만 신앙대상으로서의 석가모니부처님 밖에 없었다.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대승불교에 와서부터이다.

불상(佛像)이란 말이 반드시 부처님의 상(像)을 말하지는 않는다. 물론 좁은 의미로는 부처님의 존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불상이라 하면 대개 사찰에 봉안되어 있는 각종 보살상과 나한상 및 불교의 수호신인 신중상도 불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여래상, 보살상, 신중상, 조사상 등 불교교리와 관련된 모든 형상의 조형물을 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존상 가운데 제일의 상이 불(佛), 여래(如來)다. 이는 깨달으신 분의 상징이다. <다음호에서는 불상의 각부 명칭과 32상 80종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불공 안내서!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 입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 재(齋)란 무엇인가?
-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 49재를 행하는 이유
-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법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비매품/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조계종, 10·27법난 기념관 건립 및 법난 피해자 치유시설 사업계획 수립 완료

2017년 조계사 인근 공사, 2018년 12월 준공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총본산 성역화사업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지현스님은 5월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10·27법난 기념관 및 법난 피해자 치유시설을 조계사 일원에 2015년 1월 기본조사 설계에 들어가 2018년 12월 기념관 준공을 목표로 1차 사업추진에 나설 예정이다”며 “10·27법난 기념관 사업계획서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5월 12일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장 지현스님은 “이에 따라 위원회는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회의를 15일에 개최한 바 있다”며 “28일 30차 위원회를 통해 조계종

총무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총액 1,687억 5천만원(국가보조금 1534억 9백만원, 보조금 153억 4100만원)과 2015년도 예산요구안 541억원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현스님은 “사업계획 수립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제안서 심사, 우선협상자 선정 및 협상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향후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서를 제출 예정이며, 11월 한국개발 연구원(KDI)에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집행위원회가 밝힌 사업의 목적은 10·27 법난의 피해종단인 조계종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널리 알리고 한국불교의 전통사상을 계승, 체험하는 공간 마련/ 당시 강제연행, 구금, 각종 고문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와 이후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치유하고,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별도 공간(치유요양센터)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 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 성역화사업 집행위원회 가 추진할 예정인 기념관은 연면적 20,100㎡, 지상 6층, 지하 5층 규모로 전시, 교육, 연구, 공연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 이고, 법난 피해자 치유시설은 1,418㎡,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치유·재활, 교육, 연구 공간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상월원각대조사 40주기 열반대재 봉행

천태종, 25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40주기를 맞아 대조사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는 열반대재가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 법당에서 2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엄수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 열반대재에는 도용 종정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태고종 도산·관음종 홍파 총무원장등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 정병조 금강대 총장,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 이재오·송광호 국회의원 등 정계인사, 김동성 단양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해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40주기를 추모했다.

참석 대중들은 국운융창과 더불어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날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대조사님께서 열반을 통해 드러내 보이신 참 진리의 묘법을 나누어 지니는 영화미소의 법석”이라며 “대조사님의 거룩한 공덕으로 천태종이 무궁히 번영하고, 종단의 무궁한 번영이 중생계의 무애해탈로 이어져 일체 중생이 극락정토 연화화생하는 기원으로 회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부장 월도 스님의 사회와 부책임도전 구수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열반대재는 △종정예하 헌향·헌다·헌화 △삼귀의례 △반야심경독경 △상월원각대조사법어 봉독(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국운융창기원 △원장 스님 및 내빈 헌향·헌다·헌화 △상단관공 및 조사영반 △추모사 △추도사 △추모가(경남지역 연합 합창단) △관음정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2달 만에 1000명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7명을 더 모집하는 빠른 증가속도를 보여 올해 희망등록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올해 생명나눔실천본부 20주년을 맞아 불교계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앞장서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진각문화로 대중소통 진각종 2014 진각문화제

세월호 희생자 추모 · 진호국가불사의 장 마련



진각종 2014 진각문화제가 5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서울 충인원 일대에서 세월호 침몰 희생자 추모 리본달기, 진각 장엄등 전시, 진호국가 서원등 달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문화마당으로 펼쳐졌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사회안정과 국가안녕을 서원하는 진호국가 서원등 점등식은 5월 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충인원 내 탑주심인당 마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점등식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제대로 살피고 참회하자.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는 전환점이 되게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진호국가 서원등 점등은 성초 충인을

비롯해 통리원장 회정 정사, 교육원장 경당 정사, 탑주심인당 금강희, 비로자나정소년협회, 탑주심인당 학생회, 탑주심인당 자성동이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화합하자는 뜻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했다.

점등에 이어 참석자들은 등불을 밝혀 충인원 경내를 돌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각자의 서원을 다졌다. 점등식은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의 진혼무와 회향발원으로 마무리됐다.

점등식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열린 문화마당은 어린이날 기념 뮤지컬 공연과 탑주유치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벼룩시장이 마련돼 탑주유치원 원아들을 비롯해 성북지역 어린이 300여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대의 큰스승 아, 용성조사시여!

용성진종조사 탄생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 5월 29일 열려

사)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이사장 법률)는 5월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대의 큰스승 아, 용성조사시여!’라는 주제로 용성진종조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 발표에 나선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교수는 ‘자아완성과 구제는 둘이 아니다:용성의 대각사상’이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종종 불교 수행의 목표를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상구보리는 자아완성의 욕구로 하화중생은 구제의 욕구로 각각

이해할 수 있다” “용성은 한국근현대 불교사에서 이 두 가지의 욕구를 가장 조화롭게 실천했다.”고 말했다.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백용성은 평생을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되돌려 주고 조선이 독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다.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으로 알고 묵묵히 한 길을 걸다간 위대한 고승이었다. 지도자의 술탄수범이 그리워지는 오늘 백용성의 행적은 시대를 밝히는 햇불이요, 민족의 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고 발표했다.

생명나눔, 장기기증 희망등록 2000명 돌파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의 2014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2000명을 돌파했다. 5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에서 진행한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에서 113명을 추가로 접수하면서 총 2082명을 등록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번 3월 7일에 1000번째 희망등록자가 된 혜연 스님 이후로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다시 **우리시조** 읽는

이 몸이 죽어가서

지은이: 성삼문



성삼문 진영

어린 단종에 대한 충성심으로 세조의 불 고문을 당하면서도 얼굴 빛 한번 변하지 않았다는 성삼문의 기개는 아직도 회자 되고 있습니다.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를 옹립하는 우리들을 꾸짖는 그 매서운 기개가 이 시조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천지 가득 할 때
나 홀로나 푸르리라

독야청청을 자랑하려고 백설의 시련을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길을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조선 선비의 대쪽 같은 기질입니다.

편집·정리 = 편집위원회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 355p-9

유 물 로 보 는
비로자나불

보물 제667호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禮泉 寒天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분 류 : 유물 / 불교조각/ 금속조/ 불상
수량/면적 : 1구
지정(등록)일 1980.08.23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감천면 감천면 한천사길 142, 한천사 (증거리)
시 대 : 통일신라
소유자(소유단체) : 한천사
관리자(관리단체) : 한천사



▲ 제667호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禮泉 寒天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은 광배(光背)와 대좌(臺座)가 없어진 높이 1.53m의 철조불상이다. 우아하면서도 침착한 인상을 풍기는 얼굴, 건장한 신체, 의젓한 앉은새, 탄력 있는 다리 등은 통일신라 후기 불상으로서는 보기 드문 뛰어난 기량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 어깨를 감싸고 있는 옷은 어깨에서 내려오는 옷주름이 비교적 힘있게 보이고 자연스럽게 처리되었으나, 팔과 두 무릎의 주름에서는 형식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긴 상체, 평평한 곳판등, 유난히 두드러진 안중 등에서 추상화된 경향이 대두되는 작품으로 당시 유행하던 철불상을 가운데 우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제)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경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물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영화에서 불교보기 <34>

숙명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서>



무문관의 환경은 <위대한 침묵>에서 수사들이 생활했던 삶의 조건보다 더욱 금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사들은 바깥 경지도 내다보고, 텃밭으로 나가 식물도 가꾸고, 하루에 세 번씩 미사에 참석하면서 동료 수사를 만나고, 가끔은 다른 수사들과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무문관 수행은 3년간 좁은 방에서 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으며 독방에서 치열하게 자신과 만나야 하므로 정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엄스님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의 손엔 무언가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아직 완치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무문관 수행을 떠나는 것으로서 전리품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를 완전히 꺾어놓았습니다.

그토록 긴 시간,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수행을 했지만 스님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 작은 몸통이 안에 간혀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했던 것이나 달마스님이 소림굴에서 9년 면벽을 했던 것이나 티베트 최고의 승려인 마라레빠가 히말라야 동굴에서 12년 수행을 했던 것도 결국은 지엄스님의 무문관 수행과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엄스님도 이 성인들처럼 결국은 무언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아니라 다음 생애라도. 지엄스님의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는 결국 자기 삶에 대한 개척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명을 따르는 자의 비굴함이 아닌 운명을 개척하는 자의 자존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절에서 살아온 선우스님은 동진출가인데, 스님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절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열두 번도 넘었지만 막상 나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었다는 것이 절에서 산 이유라면서 울먹였습니다. 남들은 다들 동진출가를 부러워하는데 적장 본인은 맏한 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절에 버려진 아이, 업장이 두터운 아이라는 말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아프다고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선우 스님의 자기 한탄을 듣고 은사스님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선우스님이 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영부영 살게 된다면 정말 선우 스님의 생각처럼 스님은 오갈 데가 없



어서 절에서 사는 처지밖에 안 되지만, 선우스님이 열심히 수행하여 도를 깨닫는다면 선우스님의 처지는 도를 깨치는 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어쩌면 선우 스님은 전생에 수행자였는데, 도를 깨치기 좋은 환경에서 수행하기 위해 다음 생애는 꼭 동진으로 출가하겠다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인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은사 스님과의 만행 후 선우 스님은 수행 정진하러 떠납니다. 자기 삶이 누군가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였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옥스님은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를 졸업했고, 미국 유학도 다녀왔고, 교수 임용 면접을 앞두고 출가를 단행했습니다. 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걸 가졌고, 또한 버리기 어려운 걸 버린 경우입니다. 출가사문이 된 상옥 스님은 끝까지 메달리는 부모의 끈끈한 정 앞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라면서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상옥스님은 사회와 부모가 만들어준 삶의 조건을 박차고 나와 본인의 의지대로 수행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앞의 지엄스님이나 선우 스님처럼 자신의 삶을 본인이 결정하고 개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창재 감독은 1년여를 범홍암에서 머물면서 비구니스님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일 년에 두 번 초파일과 우란분제에만 외부에 개방되는 경성북도 영천 팔공산 은해사 산내암자인 범홍암에서의 촬영을 끝내는 날 영운 스님은 감독에게 그동안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감독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독은 인간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뜻이 아닌 본인의 의지에 따라 변화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 증거가 바로 그가 보여주는 것들인데, 지엄스님의 모습이나 선우스님과 은사스님의 대화는 감독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선우 스님이 비록 자기 뜻과 관계없이 산사의 삶을 선택 받았지만 이 또한 전생에서의 의지의 결과물이기에 결국 사람의 삶은 마음먹는 데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엄스님의 투철한 수행 의지 또한 다음 생과 연관돼 있으며, 조금 가벼워 보이



는 하지만 민재행자의 출가 동기는 분명 불교라는 종교가 갖는 성질을 설명하기에 적당했습니다.

민재 행자는 절에 들어가기 전에 불교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는 막연하게 종교인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 종교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다른 종교는 신의 의지에 기대는데 반해 불교는 자기의 의지대로 삶을 개척해 가는 종교라는 걸 알아냈고, 자신을 찾고 싶어서 절에 왔다고 했습니다.

민재 행자의 출가 동기처럼 감독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바로 이 깨달음을 철저하게 알아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감독은 영화를 만든 후 불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화 <길 위에서>는 스님의 실제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금을 사는 대한민국 스님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또한 그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픽션이었던 영화에서 보았던 스님들의 삶과는 사뭇 다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숙하지만 할 것 같은 스님의 일상은 의외로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갓 출가한 민재행자가 부모님이나 형제는 자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도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한 게 참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목을 보면서 스님들의 일상의 질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하하 호호 수다를 떨면서 고추를 따고, 김장하는 날은 잔칫날처럼 떠들썩하고, 울력을 하는 날은 맛있는 별식도 만들었습니다. 비록 꽤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지만 은사고, 상좌면 혈육보다 더 마음이 쓰인다고 하신 주지스님의 말씀처럼 끈끈한 정으로 연결돼서 서로 위해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전에 공지영 씨가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서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만난 수녀님의 모습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표현했었는데 영화에서 내가 본 범홍암 스님들의 모습도 그 수녀님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만행 나왔을 때 시장 통에서 울려 퍼지던 노랫가락은 너무 통속적으로 들렸고,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가 갈치를 토막 내는 장면은 섬뜩했고, 소원을 적는 탑에 걸려있던 '30억 벌게 해주세요'는 전박하게 여겨졌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한 스님들의 세계와 욕망이 가득한 사바세계가 비교되면서 현실이 참 남루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를 보고 출가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스님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진실에 다가 가게 하는 데 한 몫 했으며, 또한 행복한 스님의 일상을 엿보는 것은, 우리에게 힐링이었고, 또한 자정작용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한 영화였습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初發心自警文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쉬운 번역!
✓간결한 표현!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불교충지종 본산 '충지사' 서원당



불교충지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충지종.
진언밀교 충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하반기 49일 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충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www.chongji.or.kr